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제18호](2015.4/5)

서울시 용산
구 청파동
3가 119-2
진여원홍보
팀

부산정사, 부처님오신날 맞아 연등 환하게 밝혀

부산정사 연등, 4월 8일부터 지역사회 환하게 밝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여원 부산정사는 교도들의 열기로 300여개의 연등을 달아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혔다. 그동안 부산정사는 오피스건물로 오인되기도 했으나, 연등이 걸리자 초현대식 불교사찰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반불자들의 부산정사 참배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등이 달린 부산정사의 주간 전경>



<다양한 색채의 연등이 연산동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부산정사의 야간 전경>

대환희 본에자 수행, 국내 최초로 부산정사에서 개최

영성을 닦는 에자수행의 한 단계인 대환희 본에자가 4월 2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정사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대환희 본에자에 전국에서 50여명이 참가하여 2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뜨거운 기도가 행해졌다. 이날 7명이 대환희를 상승받았다.

한편, 오전에는 대승 및 환희 본에자가 개최되었는데, 각각 5명이 상승하였다. 아울러 서울포교소에서는 4월 19일 대승 및 환희 본에자가 열려 각각 2명이 상승하였다.

부산정사, 상주제에 독자 법요 프로그램 제작·실시

3월 28일 상주제를 맞이하여, 부산정사에서 3월 28일에는 비디오 방영에 의한 법요로, 3월 29일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요 프로그램으로 이틀에 걸쳐 상주제를 봉수하였다.

다만, 신분주상(神分奏上) 등은 종정스님께서 행하신 영상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독자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독자 제작한 부분은 감사의 법당(1명), 독경, 감사의 글 언상(2명), 헌화(4명) 등 이었다. 이날의 상주제 법요는 전체가 녹화되어 국제부에 송부되었다.

서울청년, 상주제 맞이하여 컬러링북의 개조께 케익 바쳐

서울청년들이 3월 29일 상주제를 맞아 개조의 얼굴그림을 그려 색칠하는 컬러링북 이벤트를 실시했다. '2015 정진목표' 팸플릿에 나오는 개조의 얼굴사진을 따서 꽃잎 하나하나부터 개조얼굴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이 직접 밑그림 제작부터 색칠에 이르기까지 모두 완성했다. 완성된 컬러링북의 개조 얼굴그림은 보전의 임시 단상에 올리고, 전면 단상에는 2단 케익도 올렸다.

청년들은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성인용 색칠공부 '컬러링북' 이벤트를 통해 진여개조를 일상생활에서 보다 친밀하게 인식함과 아울러, 색칠을 하는 동안 정신집중과 몰입을 통해 개조를 가슴 깊이 새겨나갔다.

부산청년, 응현제에 장미와 카네이션 103송이 바쳐

5월 9일 응현제를 맞이하여 부산정사에서는 영조의 생탄에 맞추어 '103 꽃송이'를 보전에 올렸다. 103이라는 숫자에는 붉은

장미송이를 꽃고, 주위에는 카네이션 103송이를 꽃았다. 카네이션은 이날 법요에 참좌한 교도 모두가 한송이씩 직접 꽃았다. '103 꽃송이' 이벤트는 청년들이 주관하였는데, 각각의 색상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장미와 카네이션이 잘 어우러져 영능의 스승이신 영조에 대한 감사의 분위기가 법당에 가득했다.



<상주제에 2단 케익과 함께 보전에 올려진 개조얼굴의 컬러링북>



<응현제에 103 송이의 장미와 카네이션이 올려진 영조얼굴의 컬러링북>

2015년에 10명의 수행자가 교 사보로 보임

지난 4월 지류학원 연구과 과정을 마치고 졸행한 10명의 수행자들이 교사보로 보임되었다. 서울에서 4명, 부산에서 6명이 각각 보임되어 진여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소임을 맡게 된다.

4월 24일 대만 등룡띠우기 행사 참좌기(전혜숙 서울교도)

처음간 대만! 얼떨결에 아무 준비도 없이 출발해서 도착한 대만이었으나 깨끗하면서도 한가로워 참으로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벗어나 무거운 생각과 걱정 모두 잊어버리고 다녀온 2박 3일을 굳이 표현하자면 무릉도원에 갔다온 기분입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그렇게 멋있는 행사에, 그렇게 많은 인파에 한국사람이 단 4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내리던 비가. 등룡띠우러 갈 때가 되니까 딱 멈췄다는 것! 정말 신기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영가천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운이 좋아 우리 3명(김연희, 이옥희, 전혜숙)이 영가천도 하고 왔거든요. 한국대표로 우리도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봉사부가 주최가 되어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신노엔의 불교로서의 보편 성(김형태 영능자)

1. 신노엔의 가르침과 수행방식은 일반불교 종단과 상이한가?

불교는 2500여년을 거치면서 많은 종파로 분화되어 왔다. 각 종파는 각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수행방식을 개발하여 행하고 있다. 각 종파의 개조들은 일반불자 및 수행자들이 빨리 득도할 수 있도록 보다 손쉽고, 보다 효과적이며, 보다 확실한 수행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중국의 간화선, 신노엔의 점심수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종파에 따라 석존의 가르침이 약간 상이하고 득도에 이르는 수행방식도 다소 상이하다. 그 결과 경전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가르침과 수행방식은 종파마다 각기 상이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석존이 남기신 가르침과 수행방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발전해 온 수행방식 중 하나로서 진여원의 ‘점심수행’을 들 수 있다. ‘점심수행’은 재가불자들이 상락아정의 경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진여 개조와 영조께서 두 법사님의 목숨위에 구축한 새로운 수행방식이다. 따라서 신노엔의 가르침과 수행방식은 타 불교종단이 갖고 있는 고유의 수행방식처럼 신노엔 고유의 수행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차이나는 바 없다고 하겠다.

2. 접심수행은 불교 수행방식의 하나

신노엔의 핵심 수행방식인 ‘접심수행’을 개발한 분은 신노 개조 및 영조이다. 마치 간화선이 중국의 대혜선사에 의해 개발된 것과 같은 것이다. 석존이 주로 행한 수행방식은 ‘선정(Meditation)’인데, 이는 오늘날 동남아에 주류로 정착되어 있는 ‘위빠사나 수행’이다. 그럼에도 간화선을 주로 행하고 있는 한국불교는 전통불교로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있다. 위빠사나도, 간화선도, 접심수행도 모두 불교 수행방식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행방식 모두가 동일한 노력과 열정을 요구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마치 의사들이 동일한 의료교육을 받지만, 수련정도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시술결과에 차이가 나듯 종파별 수행방식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각 종파의 모든 내용을 비교·판별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구제의 힘이 크다고 생각되는 종파와 사찰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조계종의 간화선은 출가스님을 위주로 하는 참선수행으로서 선문답 위주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고 상당히 현학적이어서 실제로 간화선을 통해 득도한 스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가스님조차 간화선 수행을 통해 득도하기 힘든데 하물며 재가불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간화선은 불교 대중화를 위해 개선될 필요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접심수행은 기도를 깊이 하고, 영언을 받아 실천하며 이를 거듭하면 깨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으로 불성을 개발하여 아라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6,000명 이상의 영능자가 탄생해 있는 상태이다.

불교의 다양한 수행방식 중 어느 방식이 가장 옳느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이는 각자가 선택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일상생활에 항상 쫓기는 재가불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불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접심수행이 실생활에 도움되고 행하기도 용이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신노엔에서 개조가 존중되는 이유는?

한국불교에서는 개조와 석존을 동등하게 모시는 분위기(문화풍토)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토론회 주제와 관련지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주류인 조계종은 개조가 누구인지를 그다지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개조 도의국사께서 중국으로 건너가 배우고 와서 불법을 보급하기는 했으나, 특별히 새로운 종파라고 강조하지 않았다. 그 후 고려시대에 천태종이 대각국사 의천을 개조로 세력을 확대하게 되자, 위협을 느낀 조계종은 뿌리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도의국사를 개조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나 조계종에는 사실상 개조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석가모니부처님만 존중되는 방식의 문화풍토가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풍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불상 특히 석가모니존상만 모시면 정통사찰로 인정되며, 개조가 누구인지, 어떤 종파인지, 가르침의 내용과 수행방식 등은 별로 묻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화풍토에 익숙한 우리들은 수행방식이 조금 다른 종파를 보면 그 진면목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송규상 대종사를 개조로 존중하고 있는 ‘대한불교진각종’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고, ‘밀교’의 특성 때문인지 포교에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석존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도, 개조도 모두 존중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적 문화풍토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는 어떤 종파이든 석존(또는 다른 부처님)도 모시고 개조도 모시며 개조를 통해 석존의 가르침을 배우고 득도에 이르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즉 개조를 존중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개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득도에 이르는 빠른 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석존과 개조 모두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노엔은 이러한 일본의 문화풍토에서 발전된 종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범부모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신노 범부모는 석존의 가르침 특히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을 오늘날의 현실세계에서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이다. 따라서 불제자인 것이다. 이는 진언종 창시자인 공해대사나, 우리나라 원효대사, 성철스님 모두 불제자인 것과 동일하다.

신노엔에서 개조, 영조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 석존은 2500여년 전의 성인이고, 실제로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셨는지는 경전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경전내용에는 설화적으로 묘사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설화적인지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석존께서 살았던 당시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석존과 유사한 삶의 방식이냐고 묻게 될 때 그 대답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개조와 영조는 바로 우리와 동시대를 사신 분이고, 사회생활을 하신 후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개조·영조의 일생, 삶의 방식을 따르면 바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생생하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다.

5. 화두와 리브라이의 유사성

한국의 간화선에는 ‘화두’가 있는데 대부분은 선문답 형식이다. 그런데 상당수 화두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성철, 송담스님 등이 강조하고 있는 화두가 바로 ‘이 뭐꼬?’이다. 그런데 ‘이 뭐꼬’ 화두는 신노엔의 ‘리브라이’와 매우 유사하다. 리브라이란 점심자의 주관적 마음상태를 영능자를 통해 객관화시켜 점심자(수행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리브라이가 중요한가? 그것은 점심자가 주관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는 자신의 마음상태를 영능자가 바르게 캐치하여 정확하게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언을 바르게 수용하고, 사유하며 실천하게 되면 불성을 개발하게 되고, 동시에 구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점심수행을 통해 수행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적받고 그에 대해 항상 사유하며 스스로를 바르게 해 나가고, 유상점심을 통해 단련된 자신을 끊임없이 단단히 하여 무상점심(Meditation)을 거듭하면 구제될 뿐만 아니라 득도하게 된다는 것이 신노엔의 수행방식이다. 따라서 리브라이는 화두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밀교의 보편성

신노엔의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밀교’라는 점이다. 법요의식, 호마 등을 중시

하고 경전공부 이상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밀교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총지종’이 밀교인데, 이들 신도들도 포교시에 어려움에 많이 봉착한다며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하물며, 일본에서 들어온 밀교이고 그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노엔은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신노엔은 밀교이고, 밀교가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물론 신노엔도 밀교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신노엔의 특성은 신노엔만의 특수성이라기보다는 모든 불교종파가 갖고 있는 공통성, 즉 보편성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신노엔은 밀교이고, 일본에서 창건되었고, 점심수행이라는 수행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치 않은 한국불자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교의 보편성과 각 종파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불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이 글은 2015년 한수행 개백 때에 행해진 원내 세미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임)